

아나운서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하영우*
(한국과학기술원)

오재혁**
(건국대학교)

Ha Young-Woo and Oh, Jeahyuk. 2017. A study on vowel systems and aspects focusing on announcer's vowel pronunciat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3.1. 55-94. This study examines the pronunciation of announcers, who are articulatory experts, with the aim of pragmatically resolving the argument over the Korean monophthongal system, which has variously been proposed to consist of seven to ten vowels. If monophthongs are not observed to occur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of announcers, then what has traditionally been viewed as 'standard pronunciation' is nothing but a pronunciation system of the past that has disappeared. As for the pattern of articulation of /ㅏ|/, /ㅓ|/, it was found that no announcers articulated both of these vowels as monophthongs. Though there were two announcers who articulated /ㅏ|/ as a monophthong, and two other announcers who articulated /ㅓ|/ as a monophthong, there were not any announcers who articulated both vowels as monophthongs. These results reflect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argument for the monophthongal status of these vowels any longer. As for /ㅗ|/, /ㅜ|/, a process of confluence was conspicuously observed in the speech of announcers as indicated in previous studies. The difference appeared clearly only for announcers in their 50s or older who pronounced the vowels after concentrating on monophthongs in isolation. It was difficult to observe the difference clearly when announcers in their 50s spoke full words, or when announcers in their 40s or younger spoke. As for /ㅗ|/, /ㅜ|/, a phonetic characteristic was discovered that the tendency contrasted by the height of the tongue changed into a contrast in the backness of the tongue. Compared to the loss of auditory perceptive discrimination of /ㅗ|/, /ㅜ|/ due to their confluence, there was a shift in the position of articulation for /ㅗ|/, /ㅜ|/, but in that it maintains auditory perceptive discriminatio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of /ㅗ|/, /ㅜ|/ may change the backness of the tongue in a phonetic manner. (KAIST and Konkuk University)

Keywords: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pronunciation of announcer, monophthongs, sound change, vowel shift

* 제 1 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이 연구는 30~50대 아나운서의 단모음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발음 전문가 집단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한국어 단모음 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아나운서 직군의 역할과 성격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정확한 전달’이라는 근본적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정확한 전달’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발음’은 주요한 자질 중 하나이며,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음’의 기저에는 표준 발음법이 있다. 가까운 예로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KBS 한국어 배움터(<http://www.kbs.co.kr/speak/study/rule1/rule01.html>)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의 표준 발음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나운서가 표준 발음법을 지향하는 직군임을 잘 보여 준다.

아나운서가 지향하는 표준 발음법은 1988년 당시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 중 일부이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어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정확한 역할과 지위, 체계성, 현실 발음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이관규 1995, 김선철 2004, 김세중 2004, 신지영 2006, 안병섭 2010 등). 특히 장단음의 변별, 10모음 체계 등과 같이 현실 발음과 괴리가 큰 사항은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다.

본고에서는 아나운서가 실제로 표준 발음법의 단모음 체계에 부합하게 조음을 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아나운서 직군이 표준 발음법대로 단모음을 발음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표준 발음법의 이상과 실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것이다.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에 대한 관찰은 1차적으로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한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국어 단모음 체계는 최대 10모음 체계부터 최소 7모음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단모음 체계에 대한 이견은 초기 국어 음운론에서 논쟁이 된 /ɿ/[y]와 /ɪ/[ø]의 단모음 설정 여부부터 /ɛ/[e]와 /ɞ/[æ]의 합류 과정으로 인한 변별 상실, 최근 음성학 분야에서 주요하

게 논의되고 있는 /ㄴ/, /ㄷ/의 조음 위치 이동이 대표적이다. 표준 발음법의 10모음 체계를 지향하는 아나운서 직군은 조음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국어 단모음 체계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기존의 아나운서 단모음 연구는 방송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데 비해(유재원 1987, 강순경 1996, 정명숙 2002), 본고의 연구는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아나운서의 단모음의 조음 양상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발화된 자료이므로 성별과 세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는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 직군의 단모음의 실현 양상을 성별과 세대별로 비교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국어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쟁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아나운서를 피험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발음 교육 자료나 단모음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자료

본고는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현직 아나운서를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50대 사이의 남녀 아나운서 13명(남:여=5:8)이었다. 피험자의 출신 지역은 서울(8명), 충남(2명), 전남(1명)이었으며, 2명은 출신 지역을 알 수 없었다¹. 녹음 당시 피험자는 모두 조음과 관련된 여타 사항에 문제가 없었다. <표 1>은 피험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¹ 실험에 참가한 아나운서의 소속은 CBS, KBS, MBC, OBS, PBC, TBS로 총 6개 방송국이었다. 한편 아나운서의 방언권은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 토박이 아나운서의 표준 발음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의 발음 양상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언권에 따른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은 이 연구의 목적과 별개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상 현재 활동 중인 다양한 배경의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발음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표 1. 피험자 정보

피험자 번호	성별	세대	지역
P01	남	50	서울
P02	남	50	충남
P03	남	30	서울
P04	남	30	광주
P05	남	40	서울
P06	여	40	서울
P07	여	40	서울
P08	여	40	서울
P09	여	50	서울
P10	여	40	충남
P11	여	30	미상
P12	여	30	서울
P13	여	30	미상

녹음은 방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여의도 소재 녹음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의 진행은 연구자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음성 녹음은 오디오 감독이 직접 진행하였다. 녹음에 사용된 믹서는 Digidesign PROCONTROL, 마이크는 RODE, 프로그램은 Pro Tools(ver. 10)이었다. 녹음 자료의 표본추출률은 44,100Hz, 양자화는 16bit였다.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은 두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은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단모음 발화 자료를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실험 1을 실시하기 전 아나운서에게 최대한 정확하게 단모음을 발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니/[y]와 /기/[ø]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발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제자는 녹음실 밖에 있었으며, 아나운서는 녹음실 안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제시된 단모음 ‘ㅣ, ㅕ, ㅖ, ㅡ, ㅑ, ㅓ, ㅕ, ㅗ, ㅛ, ㅜ’를 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실험 1에서 단모음의 녹음은 피험자별로 2~3회 진행하였으며, 이 중 마지막 자료(2번째나 3번째)만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².

실험 2는 단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단모음의 조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실험 2는 틀 문장이나 맥락 없이 단어만 화면에 제시하였다. 실험 2를 진행하기 전 피험자에게 단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실험 단어는 아래에 제시된 순서대로 4회 낭독하게 하였다³. 실험에 사용된 단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 ‘실험 2’의 실험 단어

순서	실험 단어
1	에 - 에미 - 누에 - 게임 - 가게
2	애 - 애교 - 구애 - 개그 - 미개
3	외 - 외인 - 시외 - 피기 - 요괴
4	위 - 위배 - 바위 - 귀가 - 고귀

실험 자료는 Praat를 이용하여 레이블링을 한 후,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해당 모음의 F1과 F2를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포먼트 측정은 burg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시간 간격(time step), 분석창의 길이(window length), 최대 포먼트 수(max. number of formants), 고주파수 증폭 시작 주파수(pre-emphasis)는 표준 설정을 따랐다. 포먼트 분석 최대 주파수(maximum formants[Hz]) 항목만 여성은 표준 설정대로 5,500Hz 이내로, 남성은 이보다 낮은 5,000Hz 이내로 조정하여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포먼트는 해당 단모음의 어느 한 지점을 측정하지 않고, 한 단모음 전체 구간을 10등분하여, 각 구간의 중간 지점 9곳의 값을 측정하였다. 이는 모음의 어느 한 지점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다중 지점의 측정값을 평균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니/, /기/는 다중 지점 측정

² 실험 1은 아나운서 스스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모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반복 측정보다는 단발 측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음성 실험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긴장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2회 발화하게 하였다. 2회 발화 시에도 긴장에 의한 실수를 하였거나, 피험자 스스로가 한 번 더 녹음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3회 녹음을 진행하였다.

³ 피험자 P01과 P13은 단어 발화를 2회만 수행했다.

방식을 사용할 경우 조음 궤적을 바탕으로 단모음 조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9곳의 포먼트 값을 그대로 제시하였고, 단모음으로 발음된 유형의 포먼트 값을 제시할 때는 9곳의 평균(이상 측정 값 제외)을 제시하였다.

3.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과 특징

3.1 단모음 /ɪ/와 /ɨ/

표준 발음법 제2장 4항에 따르면 /ɪ/와 /ɨ/는 단모음이다. ‘[붙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ɪ, ɨ/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다. 그런데 /ɪ, ɨ/가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조음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을 살펴보기 전 이들이 /ɪ, ɨ/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 발음법을 지향하는 아나운서가 /ɪ/와 /ɨ/를 실제로 단모음으로 조음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모음 단독 발화인 실험 1의 결과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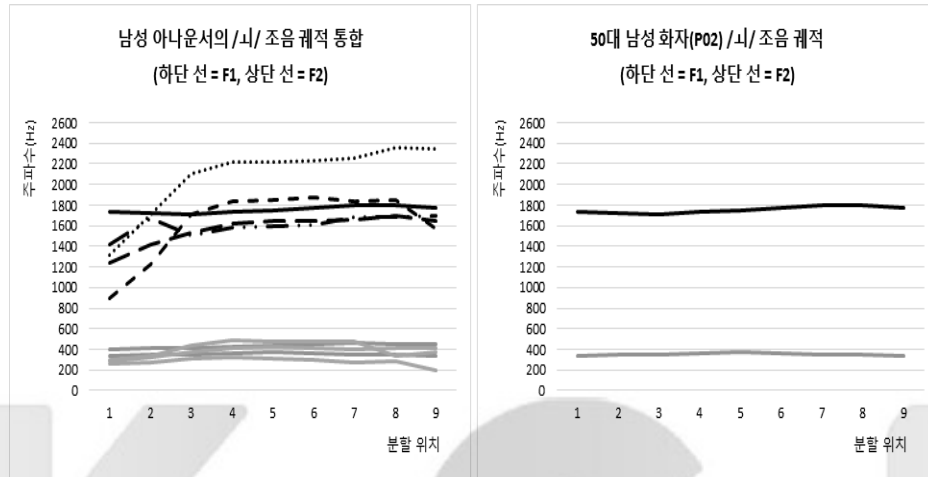


그림 1. 남성 아나운서의 /시/ 조음 궤적

<그림 1>의 좌측은 남성 피험자 5명이 실험 1에서 발화한 모음 /시/를 9등분한 후 각각의 F1과 F2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조음 동작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이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림 1> 좌측의 결과를 보면 1~3 구간에서 F2의 전이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먼트의 전이가 관찰되지 않는, 즉 /시/를 단모음으로 발화한 피험자는 <그림 1>의 우측에 제시된 P02뿐이었다⁴.

⁴ 전이 구간의 판정은 F2 포먼트가 안정을 유지하는 4~9구간별 이동 차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1~3구간에서 평균 이하의 차를 보이면 전이 구간이 없는 것으로, 평균값 이상의 차를 보이면 전이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남성 피험자는 /시/의 4~9구간 F2 이동 차 평균이 42Hz였다. 1~3구간에서 42Hz 이하의 이동 차 평균을 보인 것은 P02였는데, 평균 12Hz의 이동 차이를 보였다. 여성 피험자는 /시/의 4~9구간 F2 이동 차 평균이 69Hz였다. 1~3 구간에서 평균값 이하의 차를 보인 피험자는 P07이었고, 평균 47Hz의 이동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F2값과, 구간별 이동 차 값, 이동 차 평균값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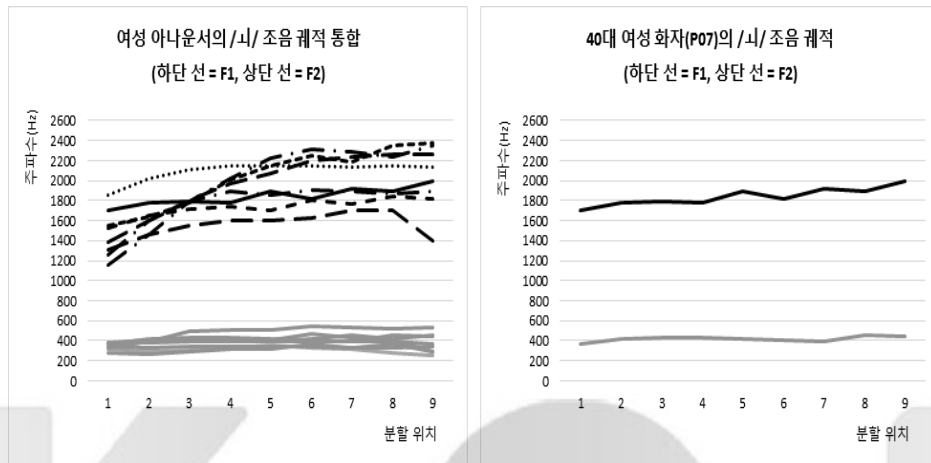


그림 2. 여성 아나운서의 /i/ 조음 궤적

<그림 2>의 좌측은 여성 피험자 8명이 실험 1에서 발화한 모음 /i/를 9등분한 후 각각의 F1과 F2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8명의 여성 피험자 중 7명이 /i/를 조음할 때 F2에 전이 구간이 관찰되었다. /i/를 전이 구간 없이 단모음으로 조음한 피험자는 <그림 2> 우측에 제시된 P07뿐이었다.

/i/의 조음 역시 /i/와 동일하게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조음하였으며 한정된 피험자만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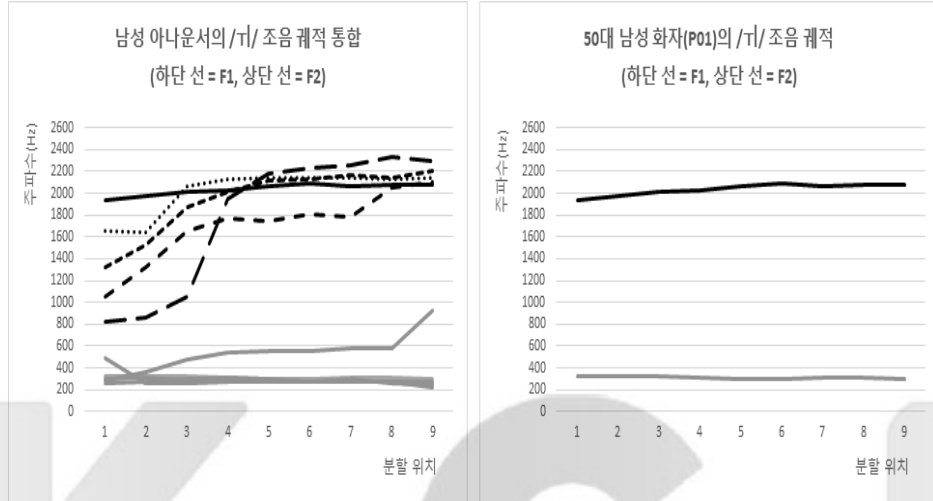


그림 3. 남성 아나운서의 /ㄱ/ 조음 궤적

<그림 3>은 전체 남성 피험자의 /ㄱ/ 조음 궤적(좌측)과 P01의 /ㄱ/ 조음 궤적(우측)을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 아나운서는 /ㄱ/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했으며, 단모음으로 조음한 피험자는 P01 한 명뿐이었다⁵.

⁵ /ㄱ/의 전이 구간 판단 기준은 /ㅂ/와 동일하다. 남성 피험자는 /ㄱ/의 4~9구간 F2 이동 차 평균이 80Hz였다. 1~3구간에서 80Hz 이하의 이동 차 평균을 보인 것은 P01이었고, P01은 평균 37Hz의 이동 차이를 보였다. 여성 피험자는 /ㄱ/의 4~9구간 F2 이동 차 평균이 90Hz이었다. /ㄱ/의 1~3 구간에서 평균값 이하의 이동 차를 보인 피험자는 P06이었고, P06은 평균 32Hz의 이동 차를 보였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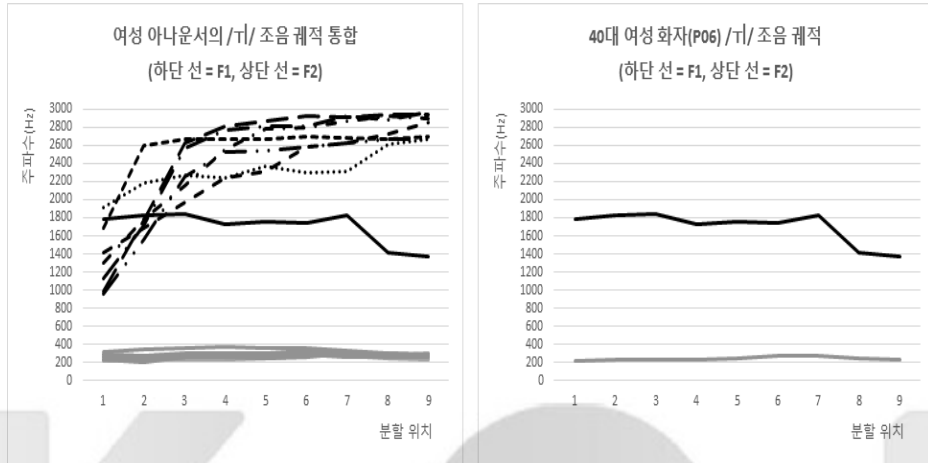


그림 4. 여성 아나운서의 /ㄱ/ 조음 궤적

<그림 4>는 전체 여성 피험자의 /ㄱ/ 조음 궤적(좌측)과 P06의 /ㄱ/ 조음 궤적(우측)을 제시한 것이다. 남성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총 8명의 여성 아나운서 중 /ㄱ/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사람은 P06 한 명이었다.

실험 1은 여타의 언어적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아나운서가 단모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와 /ㄱ/를 모두 완벽하게 단모음으로 조음한 아나운서는 없었다. 총 13명의 아나운서 중 /ㄴ/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아나운서는 2명, /ㄱ/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아나운서는 2명이었다. 이는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가 /ㄴ/, ㄱ/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⁶.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 직군이 /ㄴ/와 /ㄱ/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조음한다는 사실은 두 모음이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부분의 아나운서가 /ㄴ/와 /ㄱ/를 단모음으로 조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표준 발음법의 10모음 체계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ㄴ/와 /ㄱ/를

⁶ 아나운서가 언어적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도 /ㄴ/, ㄱ/를 단모음으로 조음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두 모음의 음운론적 정체성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2의 결과는 잉여적이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조음하는 양상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아니다. /니/와 /기/를 단모음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음성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연구는 물론 20세기 초기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 기/가 단모음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10모음 체계를 지향했던 초기 음운론 연구에서마저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초기 국어 음운론에서 10모음 체계를 지지한 연구들(이희승 1955, 허웅 1965)에서조차 대부분 /기/와 /니/가 단모음뿐만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고 하여 두 모음의 불안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를 제외한 9모음 체계를 지지한 연구들(최현배 1929/1961, 김민수 1964/1984, 정인섭 1973, 이강훈 1986)에서도 /니/를 명징하게 단모음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김민수(1964/84: 44-45)는 9모음 체계를 설정하였으나 /니/와 /기/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며, 두 모음이 단모음에서 중모음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강훈(1986) 역시 9모음 체계를 설정하였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을 통해 /니/가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음운론 연구에서는 /니/와 /기/를 단모음으로 설정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배주채 2003, 신지영·차재은 2003, 이진호 2005, 신지영 2014). 단모음과 관련된 최근의 음운론 연구에서는 /케/와 /헤/의 합류 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니/와 /기/의 단모음 설정 여부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니/와 /기/가 지역과 세대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존재하는 세대는 대체로 노년층에 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곽충구 2003, 이승규 2003).

초기 음운론 연구에서 단모음 /니/와 /기/의 불안정성에 대해 언급한 까닭은 두 모음이 실제로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에 가까웠던 데 있었던 것 같다. 20세기 초기에 녹음된 이극로의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는 한글의 음가를 강연한 것인데, 홀소리 항목 중 /니/와 /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오재혁 2016: 30-32 참조). 또한 1930년대 음성 자료를 직접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니/, /기/는 단모음상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차재은 2005, 김봉국 2006, 차재은 2007)⁷. 이는 20세기

⁷ 차재은(2005), 한성우(2005), 김봉국(2006)은 모두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연구 자료로 삼았는데, 한성우(2005)는 /니/, /기/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혀 차재은(2005), 김봉국(2006)과 차이를 보였다. 차재은(2007)은 기존의 연구 자료인 ‘보통학교 조

초기에 이미 /니/와 /긔/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20세기 말 자료에서도 /니/와 /긔/의 실현 양상은 유사하다. 60대 이상의 서울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의 연구 결과에서 /니/, /긔/는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으로 실현하는 비율이 높다(국립국어연구원 1997, 김정수 1998, 조규태 2001). 가장 최근의 연구인 장혜진 외(2016)에서도 서울 방언권 20~60대 화자 모두 /니/와 /긔/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조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니/와 /긔/의 음운론적 정체성이 이중모음에 가깝다는 것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직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을 지향하는 아나운서일지라도 /니/, /긔/의 단모음 조음이 어렵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실험 1은 언어 내외적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단모음을 발음한 것임을 감안하면 일상 발화 단계에서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조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지역이나 일부 세대, 일부 단어에 /니/, /긔/가 단모음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니/와 /긔/의 전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 혹은 화자들의 심리적 인식을 고려해 볼 때 두 모음의 음운론적 정체성은 이중모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표준 발음법은 /니/와 /긔/를 단모음으로 규정한 뒤 ‘붙임’에서 두 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지만, 언어적 실재를 고려한다면 이 기술은 반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네/와 /헤/의 합류

10모음 체계에서 /니/와 /긔/를 제외하면 국어 단모음은 /ㅣ, ㅐ, ㅓ, ㅡ, ㅜ, ㅗ, ㅛ, ㅜ/의 8모음 체계가 된다. 8모음 체계에서 전설 모음은 /ㅣ, ㅐ, ㅓ/ 3개로 구성되며, 이들은 혀의 고저로 조음 위치가 구분된다. 그런데 /네/와 /헤/가 서로 변별되는 음운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네/와 /헤/는 조음 위치가 합류하는 과정을 거쳐 두 모음이 개별 음운으로서의 변별적

선어독본'에 '김복진 동화 구연 자료'를 추가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 결과 /니/와 /긔/는 이중모음 혹은 활음이 탈락한 단모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특성을 잃었다고 보고 7모음 체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배주채 2003, 신지영·차재은 2003, 이진호 2005).

/ㄱ/, ㅈ/의 합류에 대한 단편적 기술은 1950년대부터 제시되었으며(이승녕 1954, 이희승 1955), 직접적인 기술은 1970년대부터 보인다. 이현복(1971a)은 당시 젊은 세대가 /ㄱ/, ㅈ/를 혼동하여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 /ㄱ/와 /ㅈ/ 음가에 대한 설명(이현복 1971a: 39)

요즘 십 대 이십 대의 젊은 층은 삼십 대 이후의 서울 사람들이 대체로 규칙적으로 구별하는 /ㄱ/(/ㄱ/)와 /ㅈ/(/ㅈ/)를 잘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어서 /게/(crab)와 /개/(dog) 그리고 /베/(hemp cloth)와 /배/(pear) 따위의 단어들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젊은 층의 발음에 있어서 /ㅈ/의 음가가 폐모음(close vowel)쪽으로 상승한 데에 혼동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

/ㄱ/와 /ㅈ/의 조음과 관련하여 이현복(1971b)은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하의 세대는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30대 이상은 두 모음을 변별한다고 보았다.

이현복(1971a, b)의 관찰적 기술은 1980년대부터 실험 음성학이 도입되면서 직접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초기부터 진행된 실험 음성학 관련 논의들에서는 /ㄱ/와 /ㅈ/의 조음 위치가 합류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이현복 외. 1983, 이용주 1986, 이용주 외. 1988, Hong 1988, 강순경 1989). 강순경(1989)은 20~50대 표준어 화자를 대상으로 단모음의 조음 위치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든 세대에서 /ㄱ/, 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병합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며, /ㅈ/가 /ㄱ/로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Hong (1988)은 /ㄱ/, ㅈ/의 병합 과정을 45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45세 이하 그룹은 /ㅈ/가 /ㄱ/ 방향으로 상승하여 합병되었다고 보았다.

/ㄱ/, ㅈ/의 합류 양상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결과와 논증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체계적인 실험 음성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 /ㄱ/, ㅈ/를 구분하여 조음하지 못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정명숙 2002, 조성문 2003, 성철재 2004, 최상홍 2006, 문승재 2007).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규모 음성 말뭉치를 바탕으로 /ㄱ/, ㅈ/의 조음 위치 합류 양상을 기술하였다(장혜진 외 2015, 김순옥·윤규철 2015, 이주

회 외. 2016, 강지은·공은정 2016). 이처럼 /ㄱ/와 /ㄴ/의 합류 과정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관찰적 기술과 직접적 실험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운은 화자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실체이지만 그 이전에 물리적 실체인 음성을 통해서 실증된다. 물리적 실체인 음성이 심리적 실체인 음운으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변별’은 매우 주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미 축적된 논의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ㄱ/와 /ㄴ/가 조음 측면과 청지각적 측면에서 구분되지 못한다면 두 소리는 개별 음운으로 설정될 수 없다. 7모음 체계는 일반 언중의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축적된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어 화자는 /ㄱ/와 /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모든 국어 화자가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ㄱ, ㄴ/는 본래 변별적으로 존재하는 음운이었다. 1930년대 음성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두 모음의 조음 위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변별적 모음으로 존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차재은 2007, 한정임 외 2014). 또한 최근의 연구(최상홍 2006, 장혜진 외. 2015)에서까지도 일부 노년층은 청장년층과 달리 /ㄱ/와 /ㄴ/를 구분한다는 보고하였다.

아나운서는 일반 언중과는 달리 정확한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직군이다. 표준 발음을 추구하는 아나운서가 /ㄱ/와 /ㄴ/를 구분하여 조음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 1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다. /ㄱ, ㄴ/의 조음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8개 단모음 전체의 조음 공간을 함께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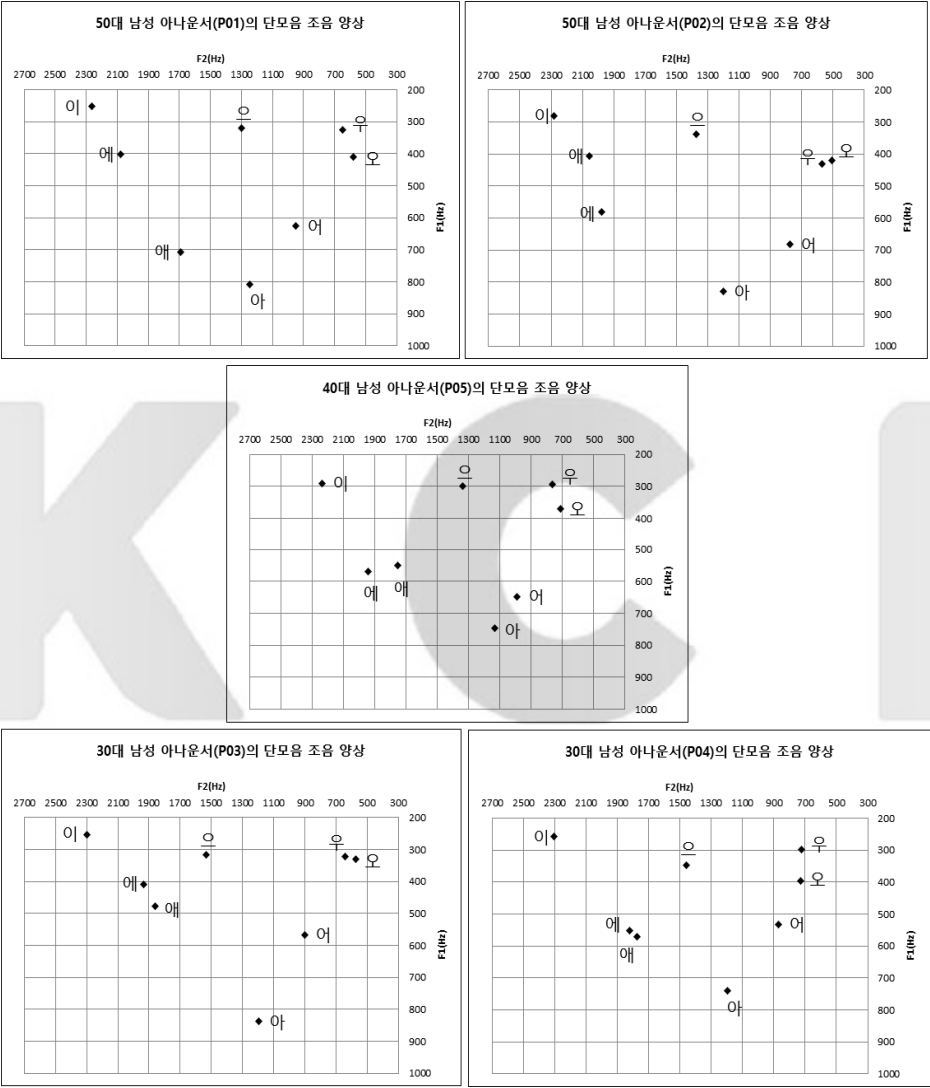


그림 5. 남성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

<그림 5>는 남성 아나운서 5명이 발화한 단모음의 조음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ㄱ/, ㄴ/의 조음 위치는 남성 아나운서의 연령에 따라 꽤 큰 차이를 보인다. 50대 남성 아나운서(P01, P02)는 /ㄱ/와 /ㄴ/의 조음 공간이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F1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는 50대 남성 아나운서가 /ㄱ/, ㄴ/를 변별하여 조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30~40대 아나운서는 /ㄱ/, ㄴ/의 조음 위치 차이가 50대 아나운서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다. 30대 아나운서인 P03은 P04(30대)와 P05(40대)에 비해 /ㄱ/, ㄴ/의 조음 위치가 F1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50대 아나운서의 /ㄱ/, ㄴ/ 조음 위치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아니다.

<그림 5>는 젊은 세대일수록 /ㄱ/, ㄴ/의 변별 능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50대 화자들은 /ㄱ/, ㄴ/를 변별하여 조음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50대 아나운서는 두 모음을 완벽하게 변별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아나운서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30대 아나운서인 P03도 /ㄱ/, ㄴ/의 모음 공간이 F1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ㄱ/, ㄴ/의 조음 위치 합류 경향성이 아나운서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일반 화자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가 더 느리게 진행됨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여성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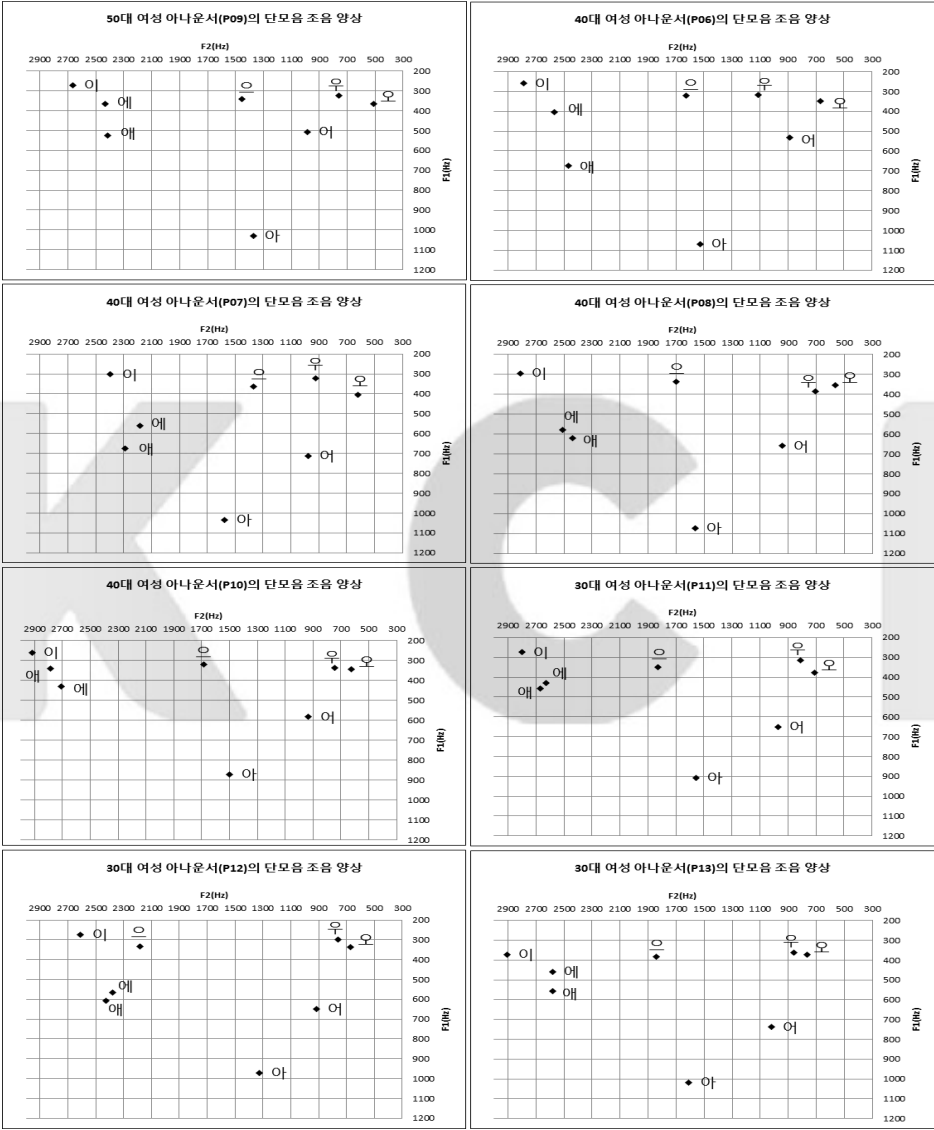


그림 6. 여성 아나운서의 단모음 조음 양상

<그림 6>은 여성 아나운서 8명이 발화한 단모음의 조음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ㄱ/, /ㄴ/의 조음 위치는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하게 30대로 갈수록 F1을 중심으로 한 조음 위치 변별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개별 아나운서에 따라서도 두 모음의 조음 위치 변별에 차이가 있었다. 50대 아나운서 P09와 40대 아나운서 P06은 /ㄱ/, /ㄴ/의 조음 위치가 꽤 큰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40대 아나운서 P07, P08, P10은 상대적으로 두 모음 간 위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ㄱ/, /ㄴ/의 조음 위치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50대 남성 아나운서 P01, P02와 50대 여성 아나운서 P09의 /ㄱ/, /ㄴ/ 조음 위치를 비교해 보면 남성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에 비해 두 모음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ㄱ/, /ㄴ/의 합류 과정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30대 아나운서의 /ㄱ/, /ㄴ/ 조음 공간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남녀 모두 두 모음이 합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 단모음 발화인 실험 1의 결과에서 아나운서의 /ㄱ/, /ㄴ/ 조음은 일반 화자와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성은 동일하다. /ㄱ/, /ㄴ/의 합류 과정에 관한 경향성은 단어 발화인 실험 2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발화 환경에 따른 /ㄱ/, /ㄴ/ 조음 위치의 변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F1, F2의 축 값을 재조정하여 두 모음의 조음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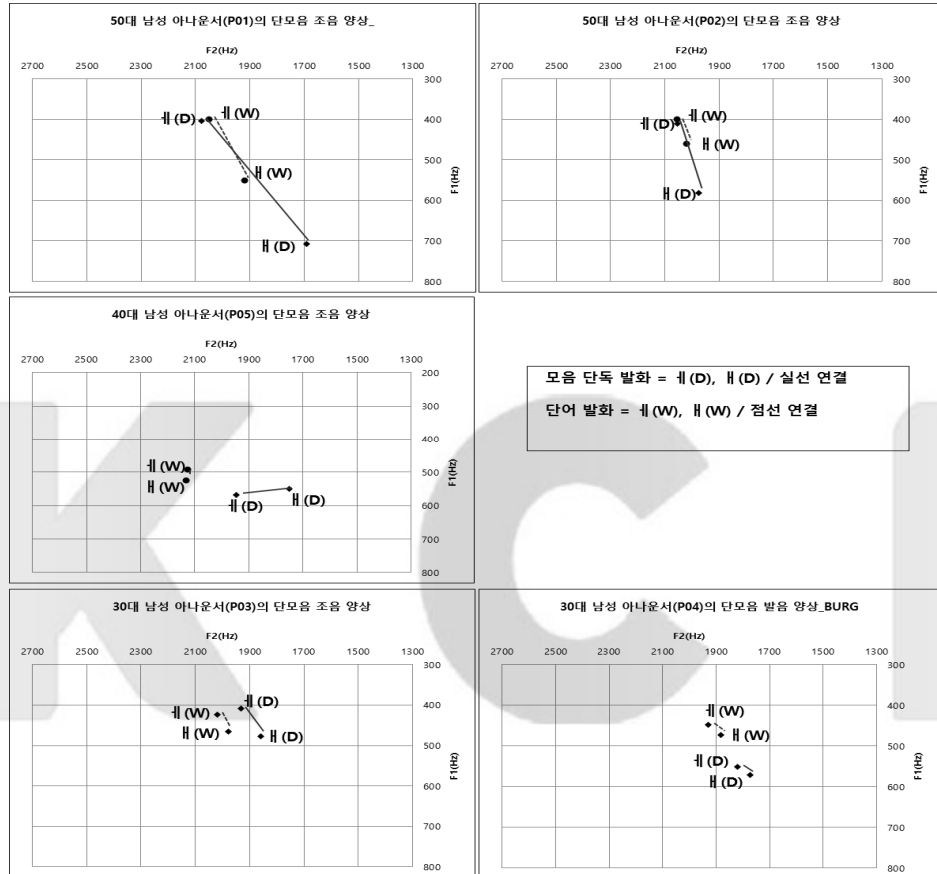


그림 7. 남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 조음 위치 차이

<그림 7>은 남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실험1, 실험 2)에 따른 /ㄱ/, /ㄴ/ 조음 위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ㄱ(D), /ㄴ(D)/는 모음 단독 발화의 조음 위치, /ㄱ(W), /ㄴ(W)/는 단어 발화의 조음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단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ㄱ/, /ㄴ/의 조음 위치는 아나운서마다 개별적 특징이 있지만 조음 위치 상승과 F1을 중심으로 한 두 모음의 조음 위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50대 남성 아나운서는 단어 발화에서 F1을 중심으로 한 /ㄱ/, ㄴ/의 조음 위치 차이가 모음 단독 조음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50대 남성 아나운서가 단모음 발화에서는 /ㄱ/, 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지만, 단어 발화 단계에서는 조음 위치의 변별 정도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의 조음 위치 변화로 미루어 보아 일상 발화에서는 두 모음의 조음 위치가 더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음 전문 집단인 아나운서도 일반 화자와 동일한 패턴으로 /ㄱ/, ㄴ/의 합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의 조음 위치 변화는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K C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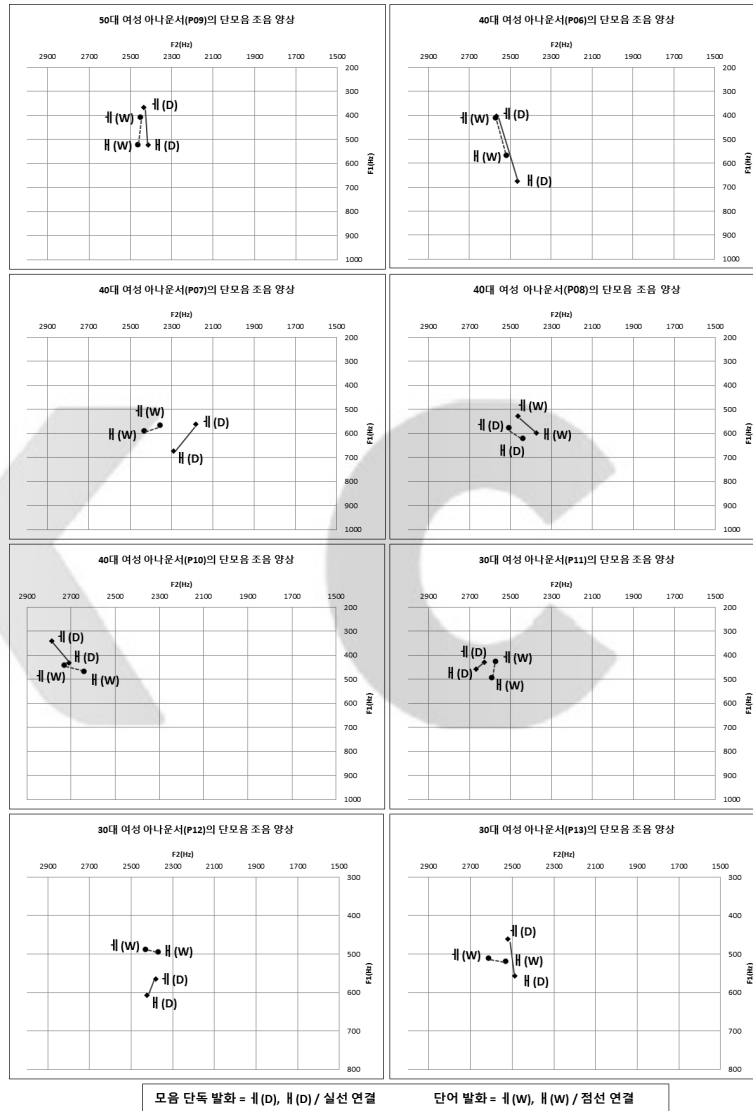


그림 8. 여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에 따른 /ㄷ/, ㅌ/ 조음 위치 차이

<그림 8>은 여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의 조음 위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의 조음 위치 차이는 개별 여성 아나운서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단어 발화에서 조음 위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모음 단독 발화에서 F1을 중심으로 한 /ㄱ/, ㄴ/의 조음 위치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P06(40대)은 단어 발화에서 두 모음의 조음 위치 차이가 현격하게 줄었다.

물론 모든 여성 아나운서가 발화 유형에 따라 /ㄱ/, ㄴ/의 조음 위치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발화 유형에 따른 /ㄱ/, ㄴ/의 조음 위치 변화는 개별 아나운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발화 환경에 따른 다양한 /ㄱ/, ㄴ/의 조음 위치 변화는 여성 아나운서 직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 경향성이라기보다는 두 모음의 조음 위치의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ㄱ/, ㄴ/의 조음 위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두 모음이 발화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조음 된다는 것이다.

아나운서는 일반 화자와 달리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발음 전문 집단이다. 이에 일부 아나운서는 이상적인 조음 환경에서 /ㄱ/, 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였다. 그러나 단어 발화 단계에서 두 모음의 조음 위치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ㄱ/, ㄴ/의 합류 과정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 일반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그 변화의 궤를 같이 하였다.

3.3 /ㄷ/와 /ㄴ/의 조음 위치

/ㄱ/, /ㄴ/가 국어 단모음 체계 내에서 제외된다면, 국어 단모음 중 원순 모음에 속하는 것은 /ㄷ/와 /ㄴ/뿐이다. 두 원순 모음은 [+후설성]과 [+원순성]을 공유하고, [±고설성]에 의해 변별된다. 그런데 최근 실험 음성학 기반의 연구에서 두 모음의 조음 위치가 매우 가깝다는 결과가 다수 제시되었다(성철재 2004, 문승재 2007, 한정임 외 2013, 장혜진 외. 2015, 이주희 외. 2016, 강지은·공은정 2016). 장혜진 외.(2015)는 20~60대 서울 방언 화자를 분석한 결과에서 /ㄷ/와 /ㄴ/의 F1, F2 값이 전 세대에 걸쳐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고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2절에 제시된 <그림 5, 6>을 살펴보면 다른 모음과 달리 /ㄷ/와 /ㄴ/의 조음 위치가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조음 위치의 거리만 생각해 보면 /ㄷ/와 /ㄴ/의 조음 위치 인접 경향은 /ㄱ/와 /ㄱ/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ㄱ/와 /ㄱ/는 조음 위치가 합류되는 과정에서 청지각적 변별성을 상실한 반면, /ㄷ/와 /ㄴ/는 그렇지 않다. 두 모음이 조음 위치의 인접성과 별개로 청지각적 변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기제는 일반적으로 [±고설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음운론에서 두 모음은 [±고설성]을 주요 변별 기제로 제시해 왔으며, 1980년대에 진행된 실험 음성학 연구에서도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F1값을 기준으로 /ㄷ, ㄴ/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현복 외 1983, 강순경 1989).

그러나 전통적으로 [±고설성]에 의해 변별된다고 보던 /ㄷ, ㄴ/는 2000년대에 들어 F1이 아닌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F2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조성문 2003, Kang 2014, 강지은·공은정 2016, 이주희 외. 2016). 강지은·공은정(2016)은 서울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ㄷ, ㄴ/가 F2값을 기준으로 변별되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서 더 급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ㄷ, ㄴ/의 변별 기제가 혀의 고저가 아닌 전후설성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는 본고의 연구 결과와 일부 부합한다. 실험 1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 아나운서는 대부분 /ㄷ, ㄴ/가 F1 값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다수가 F2 값을 기준으로 두 모음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ㄷ, ㄴ/의 조음이 F2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실험 1(모음 단독 발화)과 실험 2(단어 발화)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발화 유형에 따른 /ㄷ, ㄴ/ 조음 위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1의 /ㄷ, ㄴ/ 조음 위치와 실험 2의 ‘구애, 고귀’에 나타난 /ㄷ, ㄴ/ 조음 위치를 비교해 보겠다. /ㄷ, ㄴ/ 조음 위치의 변화 경향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F1, F2의 축 값을 재조정하여 두 모음의 조음 양상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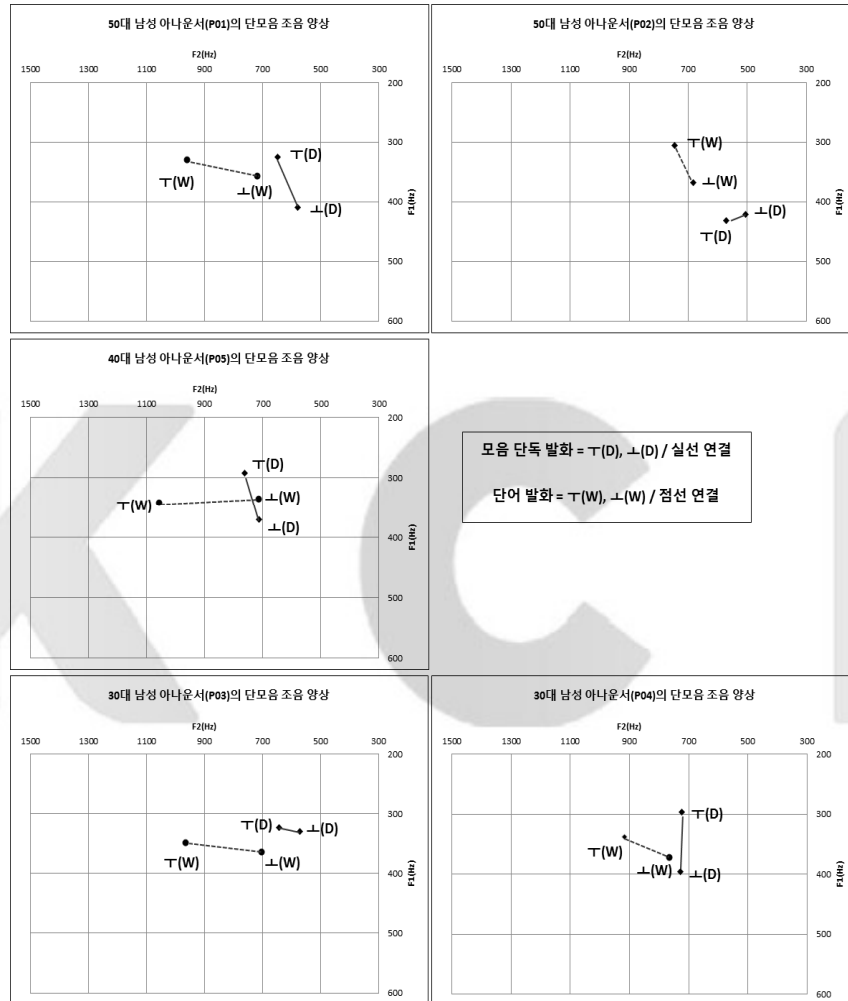


그림 9. 남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에 따른 /τ, ⊥/ 조음 위치 차이

<그림 9>는 실험 1, 2에 나타난 남성 아나운서의 /ɾ, ɳ/ 조음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단모음을 단독으로 발화했던 실험 1의 ‘ɳ(D), ɾ(D)’과 단어 발화인 실험 2의 ‘ɳ(W), ɾ(W)’를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P01(50대), P05(40대), P04(30대) 아나운서는 모음 단독 발화에서 ‘ɾ, ɳ’가 주로 F1값에 차이가 있었으나, 단어 발화에서는 두 모음의 차이가 F2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모음 단독 발화에서 ‘ɾ, ɳ’가 F2에 의해 구분되던 P03(30대)는 단어 발화에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단어 발화에서 /ɾ, ɳ/가 F1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화자는 P02뿐이었다. 이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단모음을 조음할 때는 /ɾ, ɳ/가 주로 혀의 높낮이에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두 모음이 주로 혀의 전후 위치 차를 중심으로 조음됨을 보여 준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성은 30~50대 남성 아나운서에게 모두 나타나 /ɾ, ɳ/의 조음 위치가 F2에 큰 영향을 받는 현상이 연령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ɾ, ɳ/의 조음이 혀의 고저가 아닌 전후 위치를 기준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은 여성 아나운서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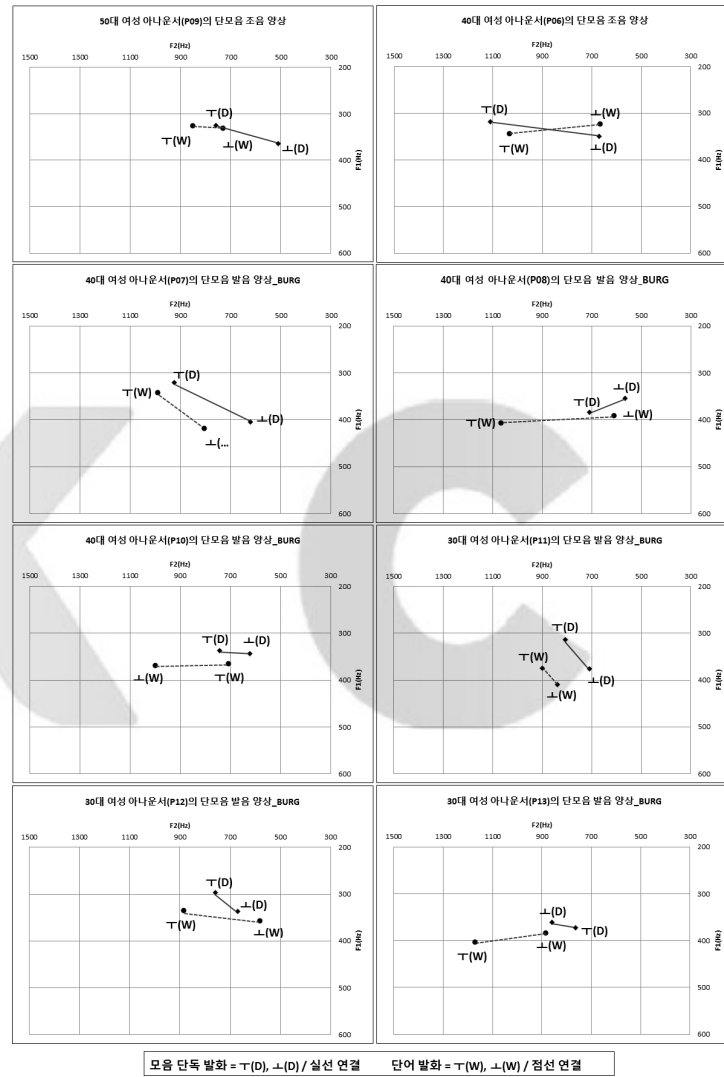


그림 10. 여성 아나운서의 발화 유형에 따른 /ㅈ, ㅈ/ 조음 위치 차이

<그림 10>은 여성 아나운서의 /ㄴ, ㄷ/ 조음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아나운서와 달리 단모음을 단독으로 발화했던 실험 1부터 ‘ㄴ(D), ㄷ(D)’의 분포가 대체로 F2에 의해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어 발화인 실험 2의 ‘ㄴ(W), ㄷ(W)’의 분포는 F2값의 차이가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F2 편차가 F1에 비해 크다는 경향 자체는 동일했다. 특히 P12(30대), P13(30대)는 ‘ㄴ(D), ㄷ(D)’를 기준으로 볼 때 두 모음의 F1 편차는 줄어들고 F2 편차는 커지는 양상을 보여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ㄴ, ㄷ/가 F2보다 F1의 편차가 더 컸던 아나운서는 P11(30대)뿐이었다.

/ㄴ, ㄷ/가 혀의 고저 위치가 아닌 전후 위치에 의해 구분되는 경향은 앞서 살펴본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하게 30~50대 여성 아나운서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아나운서와 달리 여성 아나운서는 모음을 단독으로 발화할 때도 /ㄴ, ㄷ/가 F2에 의해 구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강지은·공은정(2016)의 논의처럼 /ㄴ, ㄷ/의 조음 위치 변화 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어 발화를 할 때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ㄴ, ㄷ/의 조음 위치 구분이 F2에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 발음법을 지향하는 아나운서 직군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ㄴ, ㄷ/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ㄴ, ㄷ/의 조음 위치가 성별이나 연령에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 김영수 외.(2013)은 20대~70대 후반 화자 2,614명(남:여=922명:1692명)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김영수 외.(2013: 79-80)에서 제시한 자료 중 세대에 따른 /ㄷ, ㄴ/의 F1, F2는 아래 <표 3>과 같다. 조음 위치에 대한 직관적 관찰을 위해 20, 30, 50, 70대 남녀 화자의 /ㄴ, ㄷ/ 조음 위치를 <그림 11>로 함께 제시한다.

표 3. 김영수 외.(2013)의 세대별 /ㄷ, ㄴ/ 평균 포먼트

모음	세대	남성		여성	
		F1	F2	F1	F2
/ㄷ/	20대	421.1	1199.6	396.9	898.9
	30대	420.2	1107.4	394	925.6
	40대	403.3	1053.9	400.4	880.2
	50대	410.1	1006.4	415.3	885.1
	60대	400.3	1041	420.4	888.9
	70대	393.1	1013.3	413.7	895.2
/ㄴ/	20대	428.4	969.6	437.4	812.5
	30대	443.7	942.8	443.3	833.6
	40대	447.8	848.2	472.6	854.6
	50대	462.4	925.7	489.9	882.6
	60대	463.9	931.1	506.4	895.6
	70대	460	923.7	491.2	8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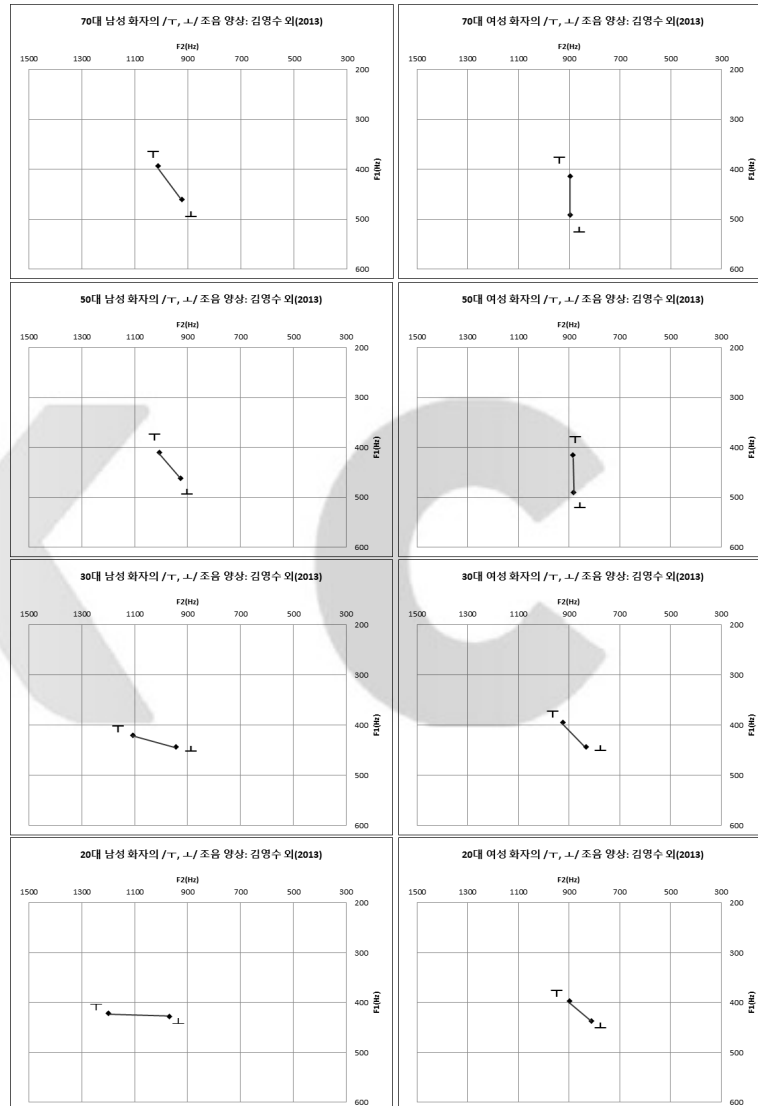


그림 11. 20, 30, 50, 70 대 남녀 화자의 /r, ɹ/ 조음 양상(김영수 외 2013)

<표 3>, <그림 11>에 제시된 김영수 외.(2013)에 따르면 /ㅈ, ㅊ/의 조음 위치는 노년층에서는 F1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0~30대는 F2가 조음 위치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남성에게서 변화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김영수 외.(2013)는 본고의 실험 1과 동일하게 단모음을 단독으로 발화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는 /ㅈ, ㅊ/의 조음 위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ㅈ, ㅊ/의 조음 위치가 연구 결과마다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두 모음의 조음 위치 변별이 혀의 고저가 아닌 혀의 전후 위치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ㅈ, ㅊ/의 조음 위치 변화는 청지각적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윤지현·성철재(2013)은 20대 충남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ㅈ, ㅊ/의 지각 실험을 실시한 결과 혀의 고저와 연관된 F1보다는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F2가 /ㅈ, ㅊ/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지현·성철재(2013)의 피험자는 본고에서 논의한 연구 자료의 피험자와 방언권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ㅈ, ㅊ/의 청지각에 F2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두 모음의 조음 위치 변화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ㅈ/ 모음의 전방화 경향성과 /ㅊ/ 모음의 상승 경향성은 두 모음 단독의 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음성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설고모음 /ㅡ/의 조음 위치는 /ㅈ/보다는 /ㅣ/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조성문 2003, Kang 2014, 장혜진 외. 2015, 강지은·공은정 2016 등). Kang (2014: 7-11)은 /ㅡ/, /ㅈ/, /ㅊ/의 조음 위치 변화를 연쇄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림 12>처럼 모음의 연쇄 변화를 도식화하였다.

Figure 4. Seoul Korean Vowel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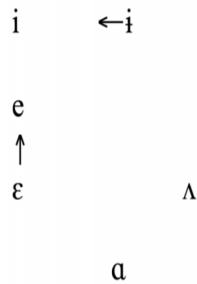


그림 7. Kang (2014: 11)의 서울 단모음 연쇄 이동

Kang (2014)의 논의처럼 /ɿ, ʌ/의 조음 위치 변화는 두 모음의 단독 변화가 아닌 전체 모음의 변화 양상을 연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ɛ, ɰ/의 합류 과정과 /ɿ, ʌ/의 조음 위치 변화 과정은 일반인은 물론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 직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변화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은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표준 발음을 지향하는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그들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을 밝히고, 이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국어 단모음 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하였다. 국어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ɿ/, /ɰ/의 단모음 실현 여부, 둘째, /ɛ/, /ɰ/의 합류 여부, 셋째, /ɿ/, /ɰ/의 음성학적 조음 위치 이동이다.

이 연구에서는 10모음 체계에서부터 7모음 체계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단모음 체계의 논쟁을 실증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음 전문가 집단인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약 우리가 표준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고 믿는 아나운서 집단에서조차 표준 발음법에 따른 단모음 실현 양상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표준 발음법’은 현실성을 잃은 ‘과거의 발음’ 혹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ɿ/, /ɰ/의 조음 양상을 살펴본 결과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아나운

서는 없었다. /ɿ/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아나운서가 2명, /기/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아나운서가 2명이 있었으나 두 모음을 모두 단모음으로 조음한 아나운서는 없었다. 이는 더 이상 ‘단모음’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ㄱ/, /ㄴ/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나운서 집단에서도 합류의 과정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50대 이상의 아나운서가 단모음에 집중하여 발음했을 경우에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날 뿐, 50대 아나운서도 단어로 발화하거나, 40대 이하의 아나운서가 발화할 때에는 그 차이를 뚜렷하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ㄴ/, /ㄷ/는 혀의 고저로 대립되던 경향이 혀의 전후 대립으로 변화하는 음성학적 특징이 발견된다. /ㄱ/, /ㄴ/가 합류로 인해 청지각적 변별을 상실한 것에 비해 /ㄴ/, /ㄷ/는 조음 위치의 이동이 있으나, 청지각적 변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ㄴ/, /ㄷ/의 변별적 특징은 음성학적으로 혀의 전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결과이다.

언어 규범은 언어생활은 물론 교육, 연구, 응용 등에 근간이 되는 기준이다. 규범을 자주 바꾸면 권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을 고수하면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규범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면 언어 규범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록

<실험 1> 단모음 단독 발화 자료

번호	세대	성별	포먼트	단모음							
				ㅣ	ㄱ	ㄴ	ㅡ	ㅏ	ㅑ	ㅓ	ㅕ
P01	50대	남	F1	253	402	708	321	626	808	325	409
			F2	2264	2078	1692	1300	948	1249	648	580
P02	50대	남	F1	280	408	580	338	683	830	432	421
			F2	2280	2054	1975	1373	776	1201	571	507
P03	30대	남	F1	254	409	477	317	568	838	323	330
			F2	2300	1933	1858	1533	902	1197	643	572

P04	30대	남	F1	258	572	552	346	533	739	297	396
			F2	2302	1773	1821	1458	868	1195	723	729
P05	40대	남	F1	290	569	551	300	647	747	293	371
			F2	2241	1946	1752	1340	989	1134	763	713
P06	40대	여	F1	260	405	674	321	531	1070	318	350
			F2	2787	2567	2466	1626	886	1528	1111	671
P07	40대	여	F1	303	674	562	364	713	1034	321	404
			F2	2395	2289	2183	1371	975	1574	925	622
P08	40대	여	F1	296	578	622	338	660	1074	384	354
			F2	2809	2508	2440	1698	941	1564	708	566
P09	50대	여	F1	271	366	523	342	508	1029	325	364
			F2	2667	2434	2415	1454	984	1373	757	510
P10	40대	여	F1	260	341	431	321	584	872	337	344
			F2	2917	2786	2709	1685	933	1498	744	623
P11	30대	여	F1	275	428	457	351	652	908	314	376
			F2	2800	2627	2668	1826	972	1556	808	710
P12	30대	여	F1	274	565	607	334	648	971	297	337
			F2	2608	2380	2424	2182	918	1325	760	670
P13	30대	여	F1	372	461	557	383	739	1018	361	373
			F2	2700	2520	2486	1844	1017	1608	859	764

<실험 2> 단어 발화 자료

번호	세대	성별	F1/2	단모음			
				ㄱ	ㄴ	ㄷ	ㄹ
P01	50대	남	F1	402	708	325	409
			F2	2078	1692	648	580
P02	50대	남	F1	408	580	432	421
			F2	2054	1975	571	507
P03	30대	남	F1	409	477	323	330
			F2	1933	1858	643	572
P04	30대	남	F1	572	552	297	396
			F2	1773	1821	723	729
P05	40대	남	F1	569	551	293	371
			F2	1946	1752	763	713

P06	40대	여	F1	412	568	344	323
			F2	2570	2517	1031	665
P07	40대	여	F1	589	567	343	419
			F2	2430	2356	990	805
P08	40대	여	F1	529	599	407	392
			F2	2464	2372	1065	610
P09	50대	여	F1	407	523	326	331
			F2	2450	2463	850	730
P10	40대	여	F1	441	467	366	369
			F2	2729	2641	707	1000
P11	30대	여	F1	426	495	374	409
			F2	2571	2589	901	839
P12	30대	여	F1	489	495	336	357
			F2	2431	2369	884	582
P13	30대	여	F1	511	519	404	384
			F2	2611	2529	1170	883

남자 /시/ 구간별 F2

	1	2	3	4	5	6	7	8	9
P01	1420	1673	1501	1578	1598	1614	1684	1682	1703
P02	1734	1720	1711	1729	1754	1768	1793	1803	1774
P03	1240	1412	1533	1627	1643	1652	1658	1691	1647
P04	900	1221	1706	1833	1845	1872	1843	1846	1574
P05	1315	1716	2105	2215	2220	2231	2259	2356	2349

남자 /시/ 구간별 F2 차이

	1-2	2-3	3-4	4-5	5-6	6-7	7-8	8-9	1-3구간 평균	4-9 구간 평균
P01	253	172	77	20	16	70	2	21	213	34
P02	14	9	18	25	14	25	10	29	12	20
P03	172	121	94	16	9	6	33	44	147	34
P04	321	485	127	12	27	29	3	272	403	78
P05	401	389	110	5	11	28	97	7	395	43

여자 /니/ 구간별 F2

	1	2	3	4	5	6	7	8	9
P06	1312	1461	1546	1606	1600	1630	1703	1700	1394
P07	1702	1776	1796	1785	1897	1817	1920	1889	1994
P08	1254	1600	1789	1895	1861	1909	1898	1870	1900
P09	1852	2026	2108	2150	2148	2153	2133	2143	2133
P10	1551	1636	1778	2005	2147	2246	2187	2350	2380
P11	1387	1596	1803	1976	2076	2193	2242	2269	2259
P12	1158	1463	1797	2021	2229	2309	2290	2234	2354
P13	1527	1655	1711	1742	1703	1807	1761	1837	1819

여자 /니/ 구간별 F2 차이

	1-2	2-3	3-4	4-5	5-6	6-7	7-8	8-9	1-3구간 평균	4-9 구간 평균
P06	149	85	60	6	30	73	3	306	117	80
P07	74	20	11	112	-80	103	31	105	47	47
P08	346	189	106	34	48	11	28	30	268	43
P09	174	82	42	2	5	20	10	10	128	15
P10	85	142	227	142	99	59	163	30	114	120
P11	209	207	173	100	117	49	27	10	208	79
P12	305	334	224	208	80	19	56	120	320	118
P13	128	56	31	39	104	46	76	18	92	52

남자 /니/ 구간별 F2

	1	2	3	4	5	6	7	8	9
P01	1940	1972	2014	2024	2068	2089	2069	2075	2076
P02	1651	1647	2069	2133	2135	2147	2145	2127	2140
P03	1325	1530	1875	2014	2111	2124	2162	2137	2207
P04	821	863	1050	1950	2176	2235	2251	2331	2293
P05	1056	1318	1658	1766	1743	1806	1785	2051	2109

남자 /기/ 구간별 F2 차이

	1-2	2-3	3-4	4-5	5-6	6-7	7-8	8-9	1-3구간 평균	4-9 구간 평균
P01	32	42	10	44	21	20	6	1	37	17
P02	4	422	64	2	12	2	18	13	213	19
P03	205	345	139	97	13	38	25	70	147	64
P04	42	187	900	226	59	16	80	38	403	220
P05	262	340	108	-23	63	21	266	58	301	82

여자 /기/ 구간별 F2

	1	2	3	4	5	6	7	8	9
P06	1778	1820	1842	1724	1750	1736	1827	1421	1377
P07	1919	2178	2270	2241	2366	2294	2307	2605	2661
P08	982	1768	2625	2808	2872	2916	2906	2935	2934
P09	1685	2593	2667	2672	2671	2691	2673	2660	2694
P10	1296	1791	2153	2556	2786	2794	2862	2923	2899
P11	1410	1690	1970	2239	2315	2575	2622	2728	2850
P12	959	1557	2248	2522	2532	2579	2623	2665	2669
P13	1128	1710	2573	2763	2808	2803	2926	2877	2971

여자 /기/ 구간별 F2 차이

	1-2	2-3	3-4	4-5	5-6	6-7	7-8	8-9	1-3구간 평균	4-9 구간 평균
P06	42	22	118	26	14	91	406	44	32	117
P07	259	92	29	125	72	13	298	56	176	99
P08	786	857	183	64	44	10	29	1	822	55
P09	908	74	5	1	20	18	13	34	491	15
P10	495	362	403	230	8	68	61	24	429	132

P11	280	280	269	76	260	47	106	122	280	147
P12	598	691	274	10	47	44	42	4	645	70
P13	582	863	190	45	5	123	49	94	723	84

참고 문헌

- 강순경. 1989. 국어 단순모음의 음향학적 분석. *언어* 14, 171-212. 한국언어학회.
- 강순경. 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32-1, 1-18.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강지은·공은정. 2016.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단일지점 포먼트와 궤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8-4, 39-47. 한국음성학회.
- 곽충구. 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59-91. 국어학회.
- 국립국어연구원. 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 국립국어연구원.
- 김민수. 1964/1984. *신국어학*. 서울 : 일조각.
- 김봉국. 2006. 개화기 이후 국어의 ‘위, 외’ 음가와 그 변화. *국어학논총*(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155-194. 광주: 태학사.
- 김선철. 2004. 표준 발음법 분석과 대안. *말소리* 50, 23-39. 대한음성학회.
- 김세중. 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105-122. 국립국어연구원.
- 김순옥·윤규철. 2015.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연령별 모음 포먼트 비교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7-3, 65-72. 한국음성학회.
- 김영수·김근호·김종열·장준수. 201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한국인 단모음 포먼트 비교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5-1, 73-80. 한국음성학회.
- 김정수. 1998. 서울 토박이말의 홀소리 조직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학연구* 10, 271-286.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문승재. 2007. 한국어 단모음의 음성학적 기반연구. *말소리* 62, 1-17. 대한음성학회.
- 박한상. 2011. *PRAAT를 이용한 음성 분석(2부): Sound Analysis*. 서울: 한빛문화.
-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 성철재. 2004. 한국어 단모음 8개에 대한 음향분석: F1/F2 모음공간에서의 음향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음향학회지* 23-6, 454-461. 한국음향학회.

- 신지영. 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133-158. 한국어학회.
- 신지영. 2014. *한국어의 말소리(개정판)*. 서울: 박이정.
- 신지영·차재은.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 안병섭. 2010.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현실음과 국어의 전통성 및 합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123-14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재혁. 2016. 20세기 초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국어의 문법적 특징. *한국어학* 71, 23-47. 한국어학회
- 유재원. 1987. 방송언어의 음성학적 특성과 변천. *방송언어 변천사(KBS 한국어 연구회 편)*. 서울: 한국방송사업단.
- 윤지현·성철재. 2013. F1/F2의 변화가 한국어 /오/, /우/ 모음의 지각판별에 미치는 영향. *말소리와 음성과학* 5.3, 39-46. 한국음성학회.
- 이강훈. 1986. 국어의 단모음과 그 음성적 및 음운적 표기법. *서울여자대학논문집* 15, 49-63. 서울여자대학교.
- 이관규. 1995.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국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치점. *새국어교육* 51.1, 37-57.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승녕. 1954. *국어학개설(상)*. 서울: 진문사.
- 이승규. 2003. 여주지역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II: 단모음 ‘외, 위, 애, 에’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0, 143-182. 개신어문학회.
- 이용주. 1986. 한국어 단모음의 분석 및 인식에 관한 고찰. *전자통신* 8.1, 6-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용주·김경태·차균현. 1988. 한국어 단모음의 성별, 연령별 특징변화 및 인식. *전자공학회논문지* 25.12, 1503-1512. 대한전자공학회.
- 이주희·윤규철·변균혁. 2016. 서울 방언의 단모음 변화 연구: 중세부터 현대까지. *언어연구* 31.4, 979-998. 한국현대언어학회.
- 이진호. 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 이현복·지민제. 1983. A SPECTROGRAPHICAL STUDY OF KOREAN VOWELS. *말소리* 6, 4-12. 대한음성학회.
- 이현복. 1971a.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1, 37-52. 서울대학교 언어

교육원.

- 이현복. 1971b. 서울말의 모음체계. *어학연구* 7.2, 19-2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서울: 민중서림.
- 장혜진·신지영·남호성. 2015.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1.2, 341-358. 한국음운론학회.
- 정명숙. 2002. 현대 국어 말소리의 통시적 변화: 1950년대 이후 방송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섭. 1973. 국어 음성학 연구. 서울: 휘문출판사.
- 정일진. 1997. 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말소리* 33, 111-125. 대한음성학회.
- 조규태. 2001. 서울 토박이말의 홀소리 체계에 대하여. *한글* 254, 75-92. 한글학회.
- 조성문. 2003.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인 연구. *한국언어문화* 24, 427-441. 한국언어문화학회.
- 차재은. 2005.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나타난 1930년대의 음운 체계. 한국어문교육학회 발표논문집.
- 차재은. 2007. 20세기 초의 한국어 모음 체계. *한국어학* 37, 361-396. 한국어학회.
- 최상홍. 2006. 국어 단모음 /에/와 /애/의 세대와 성별 차이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나랏말싸미* 21, 43-59.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 최현배. 1929/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성우. 2005.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음성자료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어문연구* 33.3, 29-5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한정임·강현숙·김주연. 2013. 편지글 읽기에 나타난 한국어 모음 /오/-/우/의 세대 간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5.4, 201-207. 한국음성학회.
- 한정임·김주연. 2014. 20세기 초 한국어 단모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6.1, 31-38. 한국음성학회.
- 허웅. 1965. *국어 음운학*. 서울: 정음사.
- HONG, YUNSOOK. 1988. *A Sociolinguistic Study of Seoul*.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KANG, YOONJUNG. 2014.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3, 1-20.

Young-woo Ha
School of Humanities & Sciences
KAIST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34141
e-mail: neozionistgo@gmail.com

Jeahyuk O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120 Neugn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with5jea@hanmail.net

received: March 31, 2017

revised: April 14, 2017

accepted: April 17, 2017